

강진군, 국·도비 확보 '가속도' 지역활력 본격화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부서별 공모사업 준비 총력 다짐 "단순히 외부 재정 지원 확보 넘어 강진의 미래 준비하는 전략"

강진군이 지난달 28일 '2025년 국·도비 확보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별 국·도비 확보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3,000억 원 확보'라는 목표 아래 각 부서의 공모사업 준비 상황과 응모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강진군의 재정 자립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분산 기조와 함께 공모사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지방정부의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공모 대응을 위해 이번 보고회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실질적인 국·도비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단순 보고가 아닌 실무 중심의 점검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각 부서장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공모 및 건의사업을 개별 보고하고, 미응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처, 전남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보고와 사업 추진 가능성 분석, 부서별 추진 애로사항 공유 등의 내용이 중심이 됐으며, 단순 형식적 보고회에서 벗어나 강진군의 공모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국·도비 확보팀은 앞으로의 국·도비 확보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집중 대응하고,



추진 및 응모 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등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도비 확보는 단순히 외부 재정 지원 확보를 넘어, 강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하나씩 성과를 쌓아가겠

다"며 "앞으로도 '기획에서 성과까지' 전주기적 국·도비 확보 전략을 수립·운영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전략 재조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완도군, 생활인구 유입해 지역 활력 높인다!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 개최, 23개 시책 발굴

완도군은 지난 5월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5년 생활인구 활력 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생활 인구 유입이 국가 정책의 주요 방편에 포함됨에 따라 정책 대응과 정주 인구 중심의 인구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 인구 및 외국인 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로 2023년부터 시행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도입된 인구 개념이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24개 부서에서 치유 관광, 외국인·귀족 확대, 스마트팜·수산 가공 분야 창업 지원 등 지역 자원과 여건을 연계한 23개의 시책을 발굴·보고했다.

시책은 ▲청년·신규 귀촌 인구 유입 위한 농지 취득 요건 완화 ▲계절 근로형 비전문 비자 신설 및 자격 요건 통합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 관련 인센티브 지원 확대 ▲여객선 야간 운항 사업 확대 ▲해변공원, 다도해일출공원 야간 경관 개선 ▲은퇴 의료인 유입·정착 지원 ▲전국 초등학교 티볼대회, 크로스핏 전국대회 유치 등이 제안됐다.

군은 발굴된 시책 중 범·제도 개선 사항은 전남도와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범우 부군수는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활인구 유입과 장기 체류·정주 전환 정책의 강화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5월 28일(수) 광양시자원봉사나눔터(커뮤니티센터 7층)에서 2025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에 소속된 위원 22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 모니터링단 위원 간 상호 인사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 방침 ▲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총괄 현황 보고 ▲ 연차별 지

광양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단 교육 실시 민·관 협력 기반 모니터링단 구성... 22명 위원 참여해 이행 현황 점검

역사회보장계획 53개 세부사업별 이행현황 점검 방법 ▲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환류 및 피드백 ▲ 향후 모니터링 일정 공유 및 의견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광양시는 이번 교육에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민·관 협력 기

획"이라며 "사업의 성과와 주민 만족도를 적극 반영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반의 내실 있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단순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하태우 광양시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용자)' 신청을 이달 20일까지 받는다. 농협 자금을 활용해 신용·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이자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장성 귀농인은 좋겠네" 장성군, 최대 3억까지 자금 지원 '귀농농업창업자금' 3억, '주택구입자금' 7500만... 20일까지 신청

'주택구입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축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상은 △65세(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농

촌 외 지역(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장성 전입이 예정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전입 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만 할 수 있으며 용자도 올해 안에 실행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경영팀(061-390-7181)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관련 지침과 신청서 서식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성/황해연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5/30일 농업기술센터 벼 시험포장에서 손모내기를 실시하고, 밥맛 좋은 쌀 품종의 생산력 검증 예비시험을 위한 시험구 조성에 들어갔다.

영암쌀 품종육종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시험구 조성은, 지역에 최적화된 고품질 쌀 품종 개발을 위한 첫걸음.

지난해부터 영암군은 품종육종사업으로 '밥맛이 우수하고' '흰잎마름병 등 병해충에 강하고' '지역환경에 잘 맞는' 고유 품

영암군, 지역맞춤형 밥맛 좋은 쌀 품종 육종 병충해 강하고, 지역환경에 잘 맞는 고유 품종 위해 시험구 조성

종 개발에 나섰다.

영암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시험구에서는 지난해 선발된 우량계통 11개체의

수량성과 재배 적응성 등을 검증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밥맛 좋고 병해충에 강한 영암쌀은 지역 쌀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산이다. 행정적·기술적 지원으로 전국에서 인정받는 영암쌀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군 품종육종사업은 ▲생산력검정본시험 ▲지역 적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2030년 품종 등록과 현장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걷기 생활화 통한 몸과 마음 가꾸기 일상 속 걷기 '1305 건강걷기 챌린지' 2기 운영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일상 속 걷기 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나주시보건소는 '1305 건강걷기 챌린지' 2기를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챌린지는 운영 기간 누적 20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하루 최대 1만5천보까지 인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5월 26일부터 모바일 걸음 수 측정 앱 '워크온(WalkOn)'을 통해 참여 예약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챌린지는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만 보 걷기를 완료한 사람은 '워크온' 앱 내 응모하기를 완료해야 한다.

챌린지 종료 후에는 응모 완료자 중 425명을 추첨해 모바일 나주시사랑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 및 상품 지급은 7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매 회차 1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사전, 사후 걷기 실천율 조사 분석에서 15% 이상의 향상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 증진과 더불어 즐거운 운동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챌린지를 운영 중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39-4804)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이명열 기자

